



영월 성당

설립일. 1952. 9. 3.
주보성인. 그리스도왕

2024년 6월 9일 연중 제10주일

제1독서

창세 3,9-15

제2독서

2코린 4,13-5,1

복음

마르 3,20-35

화답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들빛바로가기

www.wjcatholic.or.kr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 / 백운 본당 주임

사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찾아가는 '봉성체'의 시간입니다. 도시와는 다른 풍경 속에서 비료 냄새를 맡으며 농촌의 시골길을 걷는 것도 넘치게 행복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천사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천사의 집에 갔을 적의 일입니다. 10여 년 전, 사고로 크게 다치신 형제님을 정성껏 돌보시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천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성체를 모셔드리는데, 그날따라 형제님이 누워 계신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가 접이식이 아니라서, 안 그래도 왜소한 자매님이 형제님을 앉혔다 눕혔다 하려면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자동식 침대를 좀 알아보자고 봉사자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봉사자 자매님을 통하여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침대 교체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직접 당신의 손으로 앉혀드리고 눕혀드리고 싶다고... 아버지랑 그렇게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깊은 마음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침대의 불편함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아들의 눈이,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아들의 마음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분께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학자들은 심지어 그분께서 마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보이는 대로만 보았던 것이죠. 복음의 말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들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첫째 독서의 남자와 여자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고, '잘못'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넉넉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청해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쉽 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영월본당 이야기



영월 성당

영월 본당은 춘천교구 대화 본당 관할이던 시절 대화 본당 보좌 이영섭 신부의 주선으로 1952년 9월 3일 영월읍 덕포리에 10평짜리 목조 가옥을 매입하여 사목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해 3월 20일 현재의 자리에 78평의 성당을 준공하여 봉헌식을 가졌다. 이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면서 마차 본당과 통합되고 상동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키는 등 한때 10여개의 공소를 관할하는 강원 남부지역의 가톨릭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

전쟁의 아픔으로 민족이 통곡하던 시절 지역민의 기아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신용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성모 유치원을 개원하여 지역 유아교육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1970년대에는 지학순 주교님의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고 1990년부터 시도된 영월 댐 백지화 사업에 참여하여 창조 질서의 훼손을 막아냄은 물론 주말을 이용하여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동강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초기 천주교회의 여정> 책자를 발간하여 본당 신자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이후 저자인 장영돈 대건 안드레아 형제가 저작권과 판권을 배론성지에 이관하여 한국 초기의 천주교회 역사를 사진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 주민의 구제에 앞장서고 재난 지역을 돕는 일에 함께하여 왔으며, 추석과 설날에 불우이웃을 찾아 고기와 쌀 과일 등을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다.

후학양성을 위하여 이영섭(프란치스코)장학회를 설립하여 본당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던 중 2013년 교구청 지학순 장학회로 이관하였다.

영월 본당은 영월 시내 중심가에서 금강정을 향하는 나지막한 언덕위에 자리하고 교육관 옥상에 모셔진 예수성심상이 영월 시내를 향하여 축복을 내리시고 계시는 곳이다. 성당에 들어서면 성모님 상이 모셔진 성모동산이 아담하게 자리하고 어린 양들을 포근한 미소로 반긴다. 또한 성전 외부에 피에타상이 설치되어 교우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드리는 마음속 기도 소리와 금강정 숲속을 나는 새들의 노래, 그리고 금강정 아래를 흐르는 동강 물소리가 어우러져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물 밑에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듯한 아름다운 성당이다. 성당 내부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상이 모셔져 있어 신앙 선조들에 대한 공경심을 더하는 곳이기도 하다.

세 분의 사제를 배출한 영월 본당은 그동안 본당을 거쳐 가신 스무 분의 주임 사제와 한 분의 보좌 신부님 그리고 50여 분에 이르는 수녀님들과 수많은 교우들의 숨결과 땀방울, 그리고 발자취들이 어우러진 결실이기에, 그분들의 깊고 높은 뜻을 기리며 다가오는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신앙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하나 되어 주님께로 향한 신심을 키워가고 있다. 주임 사제인 이재희 안셀모 신부님의 주도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와해되고 갈라진 교우들의 신심을 주님께로 모아 작은 갈등을 넘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를 향해 노력하지만 함께 가는 소중한 주님의 집이다.



▲ 창설기념(1952.12.25.)



▲ 성지주일



▲ 주교님 사목방문

성체성사는 인제 만들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수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하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이 예식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카 22,19-20).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예식은 오늘도 우리가 미사를 거행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기에 여러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이기 때문에 성찬례(감사제)라고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이므로 주님의 만찬, 빵의 나눔, 성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를 재현하고 교회의 봉헌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희생 제사, 하느님의 거룩한 전례라고도 부르며,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신자들을 파견(missio)한다는 뜻을 지녔기 때문에 미사라고도 부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8-1332항 참조).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신앙 체험수기 모집

들빛 주보 5면 ‘함께가는 길’에 신게 될 신자분들의 소중한 체험 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주제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겪었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주소와 연락처 기재 필수)

원고 분량 : A4 1장 (제목 포함, 200자 원고지 7~8매)

보내실 곳 : 원주시 원일로 28 천주교 원주교구청 홍보부 / Email : wjhongbo@catholic.or.kr

용소막 이야기 I



정 남 진 안드레아 신부 / 용소막 본당 주임

얼마 전 2024년 5월 4일, 용소막 성당은 매우 특별한 날을 맞이했다. 본당 설립 120주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성당과 그 곁을 함께 지켜준 160년 된 느티나무들을 바라보며 본당의 120년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 120년의 역사 안에서 이 본당을 이끌고 성장시켜 온 우리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 본당의 오랜 역사가 이 건물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 이 본당이 간직한 진정한 보물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6호인 저 성당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 안에 녹아 있는 선조들의 신앙이요 열정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곳에서 사목하다 보니 참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옛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 본당이 처음 설립될 때의 이야기, 성당과 사제관을 짓던 이야기, 외국 신부님들과의 여러 사건들, 어르신들의 어릴 적 성당 이야기 등 혼자 알고 있기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이 주보 면을 빌어 나눠보고 싶다.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에도 새로운 자극을 주고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주길 기도하며 순서 없이 몇몇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려 한다.

용소막 본당은 1800년대 박해 시대에 시골로 피난한 교우들이 모여 세워졌다.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수원 지방에서 피난 왔던 신자들이 있었는데, 1800년대 말, 박해가 뜸해지자, 처음에는 용소막과 가까운 황둔에, 그리고 이어 제천 송학면에 있는 오미에 정착하였다고 전해지며, 이때 이 곳에 최씨와 백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이후 1888년 풍수원 성당이 본당으로 설정되면서 최씨 가문의 최도철 바르나바(1848-1931)가 전교 회장으로 임명되는데, 1898년 몇몇 교우들과 함께 마침내 용소막으로 이사하여 작은 경당으로 공소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1899년 오미에 살던 백씨와 행주에 살던 선씨 일가가 용소막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최씨, 백씨, 선씨. 원주교구 신자들에게 익숙한 집안이다),

이후 백씨 일가가 본당 신부를 모실 집 한 채(사제관)를 마련하면서, 최도철 회장이 본당 승격 청원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1904년 5월 4일 용소막 성당은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첫 번째는 풍수원 성당, 두 번째는 원동 성당. 놀랍게도 세 본당 모두 원주 교구에 있다)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프와요 신부를 초대 신부로 맞이하게 된다.

당시 용소막 본당을 중심으로 사방 300리(대략 118km)에 산재했던(당시엔 평창, 영월 등도 용소막 성당 관할 구역이었으니, 공소로 성사를 주러 나가면 보름씩 걸리곤 했단다) 864명의 교우들은 점점 늘어나, 1910년 즈음엔 본당을 중심으로 반경 14리(대략 5.5km) 이내에만도 8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며 대축일에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든 신자들은 4000여 명에 달했다고 하니 당시 용소막 본당의 교세가 얼마나 커졌던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아래 글은 용소막 본당의 초대 주임이었던 프와요 신부가 뮌헨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미온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제 신자들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수가 천 명을 넘지 않지만, 그들은 열심한 신자들입니다. 특히 사제관 주변 5-6개 공소 신자들이 그렇습니다.”(1904년 5월 18일 프와요 신부의 편지)

“신자들은 여전히 열심이고 성찬의 예수께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해자 수만도 2800명이고, 영성체 배령자 수도 4000명이 넘습니다.”

(1909-10년 프와요 신부의 보고서)

신자가 늘어나니 이제 커다란 성당이 필요해진다.
다음 주엔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구장 동정



6월 9일(주일) 사목방문(태강동 성당)
13일(목) 사회복지법인설립 기념미사 및 종사자 체육대회
15일(토) 최양업 신부님 시복 기원 순례 대축제
16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우천 성당)

축하드립니다

영명일 6월 11일(화)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



기억해드립니다



선종 163주기
6월 15일(토)
 최양업 토마스 신부

들빛 이모 저모

영산 성당 성전 봉헌식 / 5월 25일(토)

종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200년 교우촌 영산 성당이 지난 5월 25일(토) 성전 봉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날 함께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과 주교님, 신부님들, 수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영산성당 공동체 올림 -



101차 풍수원 성체현양대회 / 5월 30일(목)



교구 알림

성서사십주간

비대면(Zoom) : 6월 11일(화) 20시
 대면 : 6월 11일(화) 태강동 성당 10시
 6월 12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6월 13일(목) 형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신학생 하계연수

때 : 6월 17일(월)~23일(주일), 6박 7일
 내용 : 「님의 길」 1길 최양업 신부 길 순례
 (풍수원 성당~배론성지 총 122Km)
 회비 : 100,000원
 농협 317-0026-5478-81 천주교원주교구
 문의 : 성소부 033-763-4220

미사·피정·연수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 6월 9일(주일) 12시 /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서울 성소후원회 미사

때 : 6월 11일(화) / 곳 : 명동성당 소성당

성심회 미사

때 : 6월 11일(화) 18시30분~19시30분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성 골롬반 외방선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 6월 12일(수) 14시
 곳 : 원동 성당 만남의 방

보건사목 봉사자 월례미사

때 : 6월 13일(목)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사회복지 법인설립 기념미사 및 종사자 체육대회

때 : 6월 13일(목) 9시~18시
 곳 : 삼척 체육관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및 성체조배

때 : 6월 13일(목) 10시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가톨릭 여교사회 미사

때 : 6월 14일(금) 19시 / 곳 : 양업사제관
 대상 : 초·중·고 가톨릭신자 여교사
 문의 : 심태연 엘리사벳 010-8192-1213

정관장(홍삼) 단구점

송봉순(안젤라)
 T.033-762-2305
 단구동 롯데시네마 · 우리은행 옆

경성재가복지센터

남명숙(진이야가다)
 어르신들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T.033-765-0255 · 763-0251
 www.경성.kr, 관설 근린공원 인근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국가암검진지정기관(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24시간 심전도검사 면역NK세포검사
 간섬유화검사(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86)
 8시부터 검진 실시

친환경 원목가구 다심마루

최인숙(마리아)
 좌탁, 서랍장, 소파, 문갑, 식탁, 침대
 황토석온열침대 온열소파
 T.033-761-4994
 관설KT정문 맞은편

착한시공하우징

백정현(임마누엘)
 김진숙(클라우디아)
 신축 / 각종 리모델링
 전기조명 / 생활소품 일체
 T.010-7384-0010 카드결제 가능



밝음신협

故지학순주교님 도움으로 시작됨
 예탁금, 저금대출상환, 카드단말기공제
 (보영)온누리상품권
 본점 : 033-745-4571 단관 : 764-4575
 무실 : 033-748-6900 혁신 : 735-4575

변호사 최윤환 법률사무소

최윤환(암브로시오), 신주연(글라리아)
 민사 · 형사 · 가사 · 파산 및 회생
 T.033-747-8872
 무실동 신법원청사 옆

명성인쇄 · 광고

최경택(요아킴), 이안나(안나)
 칼라인쇄 · 책자 · 봉투 · 기념품
 광고 · 판촉물 · 팸플렛 · 카렌다
 T.033-747-0373 교구청 뒤 중앙로24

세무사 이해경 사무소

이해경(도마), 박영선(리디아)
 기장대행·세금신고·이의신청
 교구신자 무료 세무상담
 T.033-743-0126 원주세무서 뒤

원주가톨릭병원 월례미사

때 : 6월 15일(토)

문의 : 보건·이주민사무 033-766-1267

엠마우스 성음악합창단 여름캠프

때 : 6월 15일(토)~16일(주일)

곳 : 배론성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Zoom)

때 : 6월 15일(토) 9시~12시30분

문의 : 보건·이주민사무 033-766-1267

민족화해위원회 위원모임 및 평화기원미사

때 : 6월 16일(주일) 18시30분

곳 : 명륜동 성당

문의 : 명륜동 성당 033-762-2512

노인단체 임원 피정

때 : 6월 20일(목) 14시~21일(금) 13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본당 남·여 노인단체 임원·봉사자

어르신 대학 담당자, 가정사목(노인사목) 담당자

참가비 : 1인 40,000원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목주, 필기도구

접수 : 6월 13일(목)까지 신청서 작성 후

F. 033-765-4223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원주 ME 제151차 주말

때 : 6월 21일(금) 19시~23일(주일) 17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인원 : 선착순 20부부(혼인한지 3년 이상, 성직자, 수도자)

예약금 : 10,000원

접수문의 : 원주ME 주말분과 010-4410-4217

010-8591-4217

연령회연합회 상반기 일일교육

때 : 6월 22일(토) 9시30분~16시30분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 홀

대상자 : 각 본당 연령회장 및 임원

교육내용 : 특강 및 연도교육

참가비 : 1인 20,000원

준비물 : 미사 준비, 필기도구, 개인 컵 지참

신청 : 6월 18일(화)까지 F. 033-765-4223

문의 : 복음화사무국 033-765-4224

회장 정인풍(프란치스코) 010-9542-9000

여성연합회 하계연수

때 : 6월 25일(화)

곳 : 마산 경남식품 견학 및 우곡 성지순례

대상 : 본당 성모회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준비물 : 개인 컵이나 텀블러(식수는 개인 준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접수 : 회장 010-7202-2474

복음화사무국 F033-765-4223

본당 사무장 및 사무봉사자 연수

때 : 6월 26일(수)~27일(목)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내용 : - 특강 : 교구장 주교님

- 직무교육 : 본당 회계 관리

양업시스템 운용 / 각종 문서 작성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문의 : 사무처 033-765-422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8.24(토)~25(일)/9.21(토)~22(일)

3박 4일 : 6.27(목)~30(일)/7.18(목)~21(일)

8박 9일 : 6.13(목)~21(금)/7.4(목)~12(금)

40일 : 10.4(금)~11.12(화)

곳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바로로팔과 함께하는 젊은이 피정

서울 본원 : 6월 22일(토)~23일(일)

6월 26일(수)~27일(목)

여주 : 7월 13일(토)~14일(일)

대상 : 2030 미혼여성

문의 : 김데레사 수녀 010-7251-1908

성소모임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때 : 6월 15일(토) 14시 / 곳 :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 010-3800-1579

살레시오회

때 : 수시(문의 바람) / 곳 : 춘천 소양로 수도원

문의 : 010-7427-4627

채용·모집·기타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7월 개강, 각 6주)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 최지원 수녀

-구약성경 아카데미: 시편 해설, 주원준 박사

-로를 읽자!, 김민 신부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강사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3박4일

문의 : 010-3645-9028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 운전기사회는 가족, 단체, 골프 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 064-758-6476, 010-4566-6476

2024년 최양업 신부님 시복 기원 순례 대축제

“희망을 잃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1847. 9. 20. 최양업 신부님의 다섯 번째 편지 중에서)



대축제 참가신청

일시 : 6월 15일(토) 07:30~16:00 (백운성당~배론성지)

- 도보순례 07:30~13:00 백운성당~배론성지(8.5Km)

- 시복 기원 음악회 13:00~14:00 배론 양업광장

- 시복 기원 미사 14:00~16:00 배론 대성당

신청 : 1. 단체 참여 본당 신자들은 본당 사무실 신청

2. 개인 : 문자 또는 카톡 신청

네이버 폼 <https://naver.me/FbzE529N> / QR코드 신청

홈페이지 신청 <https://m.site.naver.com/1ncZi>

문의 : 서지마을 033-745-3217 / 010-5719-3217

이동수단 지원

* 30명 이상일 경우 버스 지원(본당별 2대까지)

* 도보순례에 참여하지 않고 미사, 음악회만 참여자는 반드시 전화 또는 문자로 사전 신청(40명 선착순)

- 원주 : 원주 댄싱공연장 주차장(구 따뚜 공연장)에서 11:50 출발

- 제천 : 서부동성당 12:00 출발

* 개인승용차로 참여시 배론성지 주차장에서 07:00 셔틀버스 이용

* 인원파악이 필요하므로 모든 이동은 사전신청을 요함

의료법인삼산의료재단 삼산병원 박상기(스테파노) 병원(관절/척추, 수술/비수술 무릎 줄기세포/인공관절, 내과/건강검진 MRI/CT/초음파) T.033-749-9900 원주시 혁신로 5	연세치과 윤석현(요셉) 임플란트, 잇몸치료, 충치치료 예약상담 : 033-733-7505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2층 마트주차장 무료이용	인까사 · 옥마루흙침대 금성침대 · 양성국 갤러리 송영범(이시도로), 민병욱(수산나) T.033-747-5757 만중가구단지 내	남부·밝은안과 박찬(루카), 권혁연(프란치스코) 안종환검진, 노안, 사시 및 약시 안건조증, 눈물흘림, 눈꺼풀꺼짐 T.033-766-9100 남부시장 옆-세경아파트주차
출장부페, 이동밥차, 도시락, 답례품 IN & Party (인파티) 인치열(아우구스티노), 이효진(스테파니아) T.010-8790-1309	크리스마스 여행사 성지순례 9월10일 코카서스3국(조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9월24일 스페인 북부 순례 10일 10월13일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10월27일 이탈리아 성지순례 12일 권영욱(마티아) 010-5485-0114	안경매니저 오필상(방지거), 서난희(아네스) 누진 다초점·하드렌즈 전문점 T.033-742-9901 행구동 SG 마트 T.033-742-9979 무실동 부영 APT 후문	여민한의원 성태경(스테파노), 조성지(마리아나) 교통사고 / 추나요법 / 봉독약침 T.033-766-1075 봉산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1층